

# 日本語나와 (繩)等の 語源

李 在 淑

코오롱綜合電氣 專務理事

技術面에서도 日本과의 接觸이 日益增進함을 勘案하여 學會誌卷頭語에 本文을 寄稿기로 했다.

우리나라 城隍堂周邊에는 白紙片을 꽂은 새끼줄이 걸려지고 또 日本神宮에도 亦是 白紙片이 꽂힌 새끼줄이 神宮建物周邊에 걸쳐진다. 이러한 새끼줄을 日本사람은 시매나와(注連繩)라고 부른다.

이러한 風習은 韓國과 日本에서만 볼수있는 現象이라하는데 이 새끼줄은 무엇때문에 城隍堂 또는 神宮周邊에 처졌을까?

이 새끼줄의 起源을 알게되던 韓日兩國의 古代祭祀의 一旦을 풀이할수 있고 또 表題의 나와(日繩)의 語源도 켤수 있다.

우선 「시매나와」라는 日本말을 풀이해 본다.

「시」는 우리말 시앗(實)의 「시」이고 「매」도 우리말 열매(實)의 「매」이고 또 「나와」는 우리말 나왔다(出現)의 「나와」이다. 즉 「시매나와」는 「열매」가 많이 열리는뜻이 된다.

그리고 우리말 「새끼줄」도 이말뒤에 「줄」과 「나와」를 添加해보면 「새끼 줄줄 나와」로 되어 그뜻은 家蓄의 새끼(仔)가 줄줄 出生하라는 것이 된다.

以上에서 城隍堂에 치는 「새끼줄」과 日本神宮에 치는 「시매나와」가 다같이 家蓄의 繁殖과 農作物의 豐饒를 願하여 神에게 祈禱한 象徴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그리고 「새끼줄」은 「새끼줄줄나와」가 原形이고, 「시매나와」도 「시매줄줄나와」로 表現되기도 한것 같다.

또 한편 「새끼 줄줄 나와」는 物件을 묶는데도 쓰이게 되어 繩을 뜻하는 兩國語는 이말이 分離하여 이루어 졌다. 즉 「새끼」와 「줄」은 우리말, 그리고 「줄」이 變換한 倭나(綱)와 나와(繩)는 日本말로 된것이다.

上記에서 日本神宮에 關係되는 「시매나와」가 나타남을 契機로 하여 日本神宮의 正門位置에 쓰고있는 도리이(日鳥井)의 語源을 캐면 우리말 나들이(出入)의 들이(入)에서 왔다는것을 알수 있다.

또 日本말로 神宮을 「미야」라하는데 新羅에서는 마야(麻耶)支르 나타냈고 또 「마야」의 古名은 큰얼(官阿良) 또는 후얼(北阿良)로 表記되어있어 「미야」즉 「마야」는 「神의얼」을 받드는 媒에서 온것 같다.

또 秋季에 神에게 感謝드리는 祭事を 日本말로 「마쭈리」라고 하는데 「마쭈리」는 우리말 받들이(奉仕· 또는 支持)의 變化이다. 즉 ㅁ音이 ㅂ音으로 變하는 例는 미루(日·見)와 보오(韓·見)를 들수있고 日本말 「쭈」는 原音이 「두」인데서 上記와 같이 풀이할수 있다.

또 感謝하다는말은 日本말로 「아리가도」, 우리말은 「고맙소」로 나타내는데 兩口語를 이順序로 連結하여 그原形을 찾아보던 「알가득 고맙소」로 된다. 이短文에서 末審한 語彙는 「고」인데 「고」는 새끼(仔)를 말하는 古代語이고 日本말의 現代語에 이形態로 使用되고있다 따라서 「알가득」은 시앗(實)이 容器에 「가득」찾다는 뜻이고, 또 「고맙소」는 家蓄의 새끼가 많다는 뜻이되어 兩語가 다같이 農作物의 豐饒와 家蓄의 繁殖을 뜻하는데서 오고있다.

즉 前記한 「새끼줄줄나와」는 神에게 所願을 나타내는데서오고 「알가득 고맙소」는 所願이 達成됨을 神에게 感謝드린 말이라고 볼수 있다.

始初 神에게 感謝드리는 이말이 漸次一般化하여 「알가득」이 「아리가도」로 된것이 日本말이고, 「고맙소」가 「고맙소」로 變換것이 우리말로 된것이다. (以上은 韓日兩國語를 直列法에 依하여 그語源을 캐본것임.)